

독수리같이, 다시 (이사야 40장 27절 - 31절)

† 말씀 나누기

1. 최근 내 삶에서 가장 자주 한숨이 나오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 한숨을 사람이나 상황을 향해 쏟아내고 있었는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고 있었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2. 내게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는 수천 가지의 길이 있다는 말씀을 붙들어야 할 상황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명철을 의지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3.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앙망하기 위해 내가 현실에서 결단하고 실천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기도 시간 정하기, 염려가 생길 때 하나님께 한숨쉬며 먼저 말하기, 말씀한 구절 붙들기 등 구체적인 실천을 나누어 봅시다.

† 함께 기도하기

1. 한숨을 주님께 드리는 기도

삶의 무게로 한숨이 깊어질 때 사람이나 상황을 향해 원망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쏟아놓게 하옵소서. 우리의 탄식까지 받아주시고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독수리같이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2. 새 힘을 덧입는 기도

우리에게 없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힘이 빠지는 순간에도 영원하시고 전능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주님을 앙망하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버티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을 덧입어 믿음으로 걷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다시 비상하는 은혜의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 찬양하기

주를 앙모하는 자 (354장)



1.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
 2.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
 3.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
 4.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



수 리 같이 모든 싸움이 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
 단 치 않 네 길을 잃은 양 떼를 두루 찾 아다 니며 걸 어
 곤 치 않 네 천성 문 을 향 하여 면 류 관 을 언 도 록 달 려
 수 리 같이 은혜 안 에 뛰 놀며 주 의 영 광 보 리라 올 라



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가 걸어가 고단치 않 네 주
 가 달려가 피곤치 않 네
 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앙 모하 는 자 주 앙 모하 는 자 주



앙 모하 는 자 늘 강 건하 리라

서론: 힘이 빠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의 삶에는 익숙한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현실의 무게로 인해 힘이 빠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직장인도, 학생도, 가정주부도 각자의 자리에서 한숨을 쉬며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독수리같이 다시”라는 제목처럼, 힘이 빠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다시 날아오르게 하시는 은혜를 전해줍니다.

본론: 독수리같이 다시 일어나는 은혜

첫째, 하나님께서 한숨 짓는 나를 만져주십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오랜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잊으신 것은 아닌지, 포기하신 것은 아닌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나 이 한숨은 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이 하루는 또 어떻게 살아가나” 하며 나도 모르게 한숨을 내뿜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한숨 자체가 믿음에 없는 모습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향하여서 한숨 짓고 있는가 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한숨과 불평과 탄식이 세상이나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세상과 사람은 우리의 탄식을 온전히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한숨을 받아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다윗도, 한나도, 욥도 하나님 앞에서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만 탄식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그분께만 한숨 짓고 탄식하고 토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은 먼저 아파하는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둘째, 우리에게 없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이십니다. 사람은 시간을 늘릴 수도, 줄일 수도, 되돌릴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땅끝까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와 작은 곤충 하나까지도 능력으로 창조하시되 조금도 피곤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눈에는 길이 없어 보이고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나님께는 수천 가지의 길이 보이십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힘이 넘치는 때에도 사람은 피곤할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피곤의 진짜 답은 세상의 처방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능력이 많으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없는 놀라운 능력이 있으니, 그분께 나아가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27절이 한숨으로 시작했다면, 31절은 독수리의 비상으로 끝이 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결단을 요청합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앙망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내 마음과 시선과 뜻을 다 해서 온전히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은 단지 조금 보태지는 힘이 아니라, “힘을 갈아입게 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더럽고 낡고 추운 옷을 벗기시고 깨끗하고 따뜻한 새 옷을 입혀 주시듯, 우리 안에 있는 지친 힘을 하나님의 새 힘으로 완전히 바꾸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독수리가 높은 창공에서 날개를 펴고 유유히 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 힘으로 날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떠받쳐 주신다라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다 토로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결론: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의 축복

우리의 삶에는 한숨이 있고, 피곤함이 있으며,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숨 짓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우리에게 없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피곤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듯 다시 비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앙망하여 독수리같이 다시 일어나는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